



내가 라면을 먹는 것은

다운중 3-2 이도윤

기적이다.

평생을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순간이다. 눈앞에 보이는 꼬불꼬불한 면발, 코를 자극하는 저 아득한 향기. 드디어 나에게도 라면을 먹어 볼 기회가 생겼다. 내가 16살이 될 때까지 라면을 먹어보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태어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던 나는 1.8kg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로 들어갔다. 의사 선생님은 내가 살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단다. 몇 달 동안 이나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나는 겨우겨우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퇴원 이후에도 잦은 병치레에 시달리던 나는 6살에 백혈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게 된다는 게 뭔지, 백혈병이 도대체 뭔지, 왜 자꾸 커다란 바늘을 내 몸에 찔러 대는지 알 수 없었다. 단지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언니들, 같은 병실을 쓰던 친구들과 병원에 있는 작은 놀이방이 좋았다. 하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밖에 나가 뛰어노는 친구들이 부러웠고, 내가 언제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 나이대의 친구들이 수다를 떨

며 학교에 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와 간호사 언니들에게 학교에 가고 싶다며 울고불고 떼를 쓰게 되었다.

“나도 학교 갈래,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못 가는데?”

“... 조금만 있으면 너도 학교 갈 수 있어. 약도 잘 먹고, 주사도 잘 맞고... 밥도 잘 먹으면 빨리 나올 거야.”

울먹인다. 엄마는 울먹이고 있었다. 엄마가 울먹이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나는 깜짝 놀라 엄마에게 사과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울 줄 몰랐어.”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의 눈에서 내가 늘 맞던 주삿바늘 끝에 맺혀 있는 약물 같은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가 더 미안해...”

그렇게 우리 모녀는 껴안고 몇십 분을 더 울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나는 드디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대신 조건이 붙었다. 병이 완치된 것은 아니니 약은 매일 매일 잘 챙겨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은 병원에 올 것, 병원에서 짜준 식단대로 식사할 것, 몸에 해로운 음식은 먹지 않을 것. 비록 조건이 붙긴 했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이 행복했다.

학교에 대한 기대는 내가 학교에 들어간 첫날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 이미 친한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되어 있는 교실에서 친구를 만들기관 쉽지 않았다. 심지어 발표라고는 한번도 해 본 적 없던 나는 선생님께서 발표를 시키자마자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져 ‘토마토’라는 별명까지 얻고 말았다. 모둠 활동, 발표, 체육활동... 하나도 잘하는 게 없던 나는 반에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재량은 같은 모듬 하기 싫는데… 재 발표 못 하잖아.”

그렇게 ‘민폐 토마토’가 된 나는 이미 바닥을 친 자존감을 가지고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었다. 친한 친구도 없었던 나는 다른 친구들이 서로 수다를 떠는 동안 내 자리를 지키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였다. 창가 자리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넌 이름이 뭐야? 나는 주경이, 임주경이야. 다른 동네에서 와서 친구가 없어. 너 나랑 친구 하지 않을까?”

나는 나에게 이유 없이 다가오는 주경이에게 의심을 가졌고, 멀리하려 했다. 하지만 끈질기게 달라붙어 말을 거는 주경이에게 결국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우리 둘은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다. 주경이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나는 내 자존감도 조금씩 되찾고, 학교생활도 잘할 수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 맞은편에 주경이가 보였다. 나는 주경이를 불렀고, 병원까지 같이 걸어가기로 했다.

“나는 병 나으면 라면 꼭 먹어보고 싶더라. TV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던데.”

“너 다 나으면 내가 라면 끓여줄게. 나 라면 진짜 잘 끓여!”

“까먹지 마. 나는 네가 끓인 라면 꼭 먹어보고 싶으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나를 다급하게 불렀다. 진료실에 들어간 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평평 울었다. 수치 결과가 모두 정상이라 완치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나는 급히 전화기를 들어 주경이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주경이는 평평 울며 나를 축하해 주었다.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는 완치 축하 파티가 열렸다. 케이크에 촛불을 불고 있었던 그때, 주경이가 냄비에 담긴 라면을 가져왔다.

“빨리 먹어봐. 진짜 맛있을 걸?”

라면을 먹는 순간, 주경이가 옆에 있는 이 순간, 나의 병이 완치된 이 순간, 이 순간은 모두 기적이다.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끔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것, 내가 아프지 않은 것, 내가 라면을 먹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다.

